

금·은색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라메 클로스

옷감에 사용하는 금속은 구리,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3가지 정도이다.

알루미늄은 슬리트양으로써 사용되고 있는데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을 증착시킨 것으로써 비교적 부드럽기 때문에 착용감에는 그다지 영향은 없으나 동이나 스테인레스를 극히 가늘게 나누어 철사와 같이 만든 실(금속사라고 한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속사를 사용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의 문제점으로써는 낙뢰에 약하고, 옷감을 재단한 절개부위가 피부를 찌를 수 있어 피라도 난다면 큰일이다. 세탁이나 드라이 클리닝도 할 수 없어 오염이 되면 중성세제 액으로 닦아내는 정도의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흡한성, 흡습성이 없다. 땀으로 인하여 구리가 녹슬어 노색의 녹이 쓴다. 비에 젖어도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장식용 금사나 은사 등은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고, 현재는 철·알루미늄박(箔) 등의 여러 가지 금속사가 생산되고 있으며, 철·알루미늄 등의 용융체로부터 금속섬유를 만드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제법은 용융방사법, 다이스로 뽑아내는 방법, 선상(線狀)으로 결정성장(結晶成長)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의류용으로는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는 일반섬유에 비하여 너무 무거우며, 열전도가 너무 쉽게 되어 적합하지 않으나, 불연성을 이용한 소화(消火) 및 내화(耐火) 용품이나, 비중이 큰 점을 이용하여 가라앉기 쉬운 어망, 전기전도성이 좋은 점을 이용하여 대전방지의류, 강도와 탄성을 살린 타이어코드, 복합재료, 기타 공업용 자재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야말화지(野末和志))

메탈릭한 속옷이나 톱, 디스코 풍의 드레스에 주목해 보자. 라메를 사용한 니트, 금은박 프린트라던가 글리터링 프린트, 메탈릭사, 금은사, 라메, 루렉스 등의 단어들은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양털이나 견(絹)의 광택

과는 다른 특이한 금속성의 광택을 응용하여 문직물(紋織物)이나 기타 무늬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실 또는 직물의 이름이고 이들 재료는 옛날부터 사용되어온 금은사(金銀絲)로부터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메탈릭얀(metallic yarn)은 테프론 필름이나 셀로판 등에 증착(蒸着)금속을 도금한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미 고분에서 출토된 직물에서 볼 수 있다. 근세 이후 금란·은란·몰직(織)에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프랑스어로 라메(lame)라고 불리는 직물은 이런 종류의 장식사(裝飾絲)를 사용한 것이다.

금은실에는 100% 금속으로 된 것, 플라스틱을 코팅한 것, 보통 면사에 코팅한 것 등이 있다. 금속실은 직조·편물·자수 등에 쓰이며, 원료는 알루미늄·금·은·구리·스테인리스스틸 등이 있다. 제조법은 금속을 기계에 통과시켜 다른 인조섬유와 같이 또는 그 보다 더 가는 필라멘트가 될 때까지 늘린다. 굵기는 수 μm 이다. 기능성 의류 또는 대전방지용(帶電防止用) 복지 등에 혼방교직용으로 사용되며, 직물은 루렉스(Lurex)라는 상표명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또, 금은실을 모방하여 금박 또는 은박으로 만든 금은색의 실은 실에 금박·은박을 입힌 것인데 이런 종류의 모조품은 종이에 옷칠을 하고 금박이나 은박을 바른 다음에 가늘게 재단한 얇은 실과, 또 견사·면사·화학사 등을 심으로 하여 그 주위를 금은박으로 감아 꼰 것이 있다.

메탈릭한 옷감은 이 외에도 금속가루를 원단의 표면에 프린트하는 방법, 금속박을 프린트하는 방법, 비즈나 스팅글을 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사이닝은 옷의 매력을 고객에게 오랫동안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충고가 필요하다. 라메사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증발시켜서 부착시키는 것(금속증착가공이라고도 한다)

이기 때문에 세탁이나 클리닝에 견디도록 제조되어 있으나 레이스나 스팽클이 금속 증착되어 있는 것이라면 절단된 부분으로부터 침식되어 가고 금속가루를 프린트한 라메 프린트라던가 금은박 프린트인 경우에도 금속을 옷감에 정착시키고 있는 합성수지의 정착제가 클리닝에 사용하고 있는 용제(퍼클로로에틸렌)가 녹여 간다. 메탈릭이 면섬유 등에 섞여 있는 것이라면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삶는다던가 하면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고 대기 중의 아황산 가스에도 부식되는 일이 있다. 양모 제품과 함께 보관하게 되면 역시 양모의 유헤분과 반응하여 색상이 거무스름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요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금은사는 일반적으로 1플라이 은색 스플리트사는 투명코팅/알루미늄 증착/폴리에스테르 베이스 필름, 1플라이 금색 스플리트사는 투명코팅/알루미늄 증착/황색 또는 오렌지색의 수지를 도포/폴리에스테르 베이스 필름과 같은 순서로 알루미늄 증착에 의하여 생산한다. (야말화지(野末和志))

화려한 캅테일 드레스라던가 이브닝 드레스에 자주 사용되는 하나의 소재로써 라메 클로스가 있다. 금색, 은색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이러한 라메 클로스는 어떻게 하여 만들어지는 것일까? 라메 클로스라 함은 모양 부분 등에 금속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직물이다. 이러한 금속사를 라메 또는 라메사라고 한다. 라메는 프랑스어로써 금은 등의 금속박의 의미이다. 금속사에는 금, 은 등을 종이와 같이 얇고 편평하게 펴서 재단한 절박(切薄)과 견사에 금은박을 감아 붙인 금은사의 2종류가 있다. 최근에는 착색한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박을 정착 또는 알루미늄을 진공증착(도금)시킨 절박이 많고 황색으로 착색한 필름은 금색으로 무착색한 필름은 은색으로 빛난다. 이것을 재단하여 금사, 은사로써 사용한다. 절박은 세탁에도 튼튼하다.

라메사는 금, 은색이 일반적이지만 이 외에도 색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

유희라던가 기분 좋게 라메 패션을 하고 즐기는 여성도 늘고 있다. 이브닝 드레스를 시발로 하는 드레시한 드레스, 블라우스, 스카프, 장식 갓두리, 장식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